



[종합] 다시 불붙은 패닉바잉 곳곳서 '억, 억' 강남 신고가 행진 02



Economy

코스피	2990.57 (+46.12)	코스닥	985.76 (+8.14)
금리 (우대금)	0.936 (-0.018)	환율 (원/달러)	1087.60 (+5.50) (5일)

토스 등 빅테크 공습 '플랫폼 혁신' 총력전

국민연금 판지에... 아시아나 인수 '시계제로'

2021 미래를 코리아 코로나19 딛고 재도약 금융부문



올해 금융기관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의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은 올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보급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화를 찾더라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금융시장과는 다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통 금융사는 올해 핀테크·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혁신금융'에 주력할 방침이다. 돈의 흐름, 거래의 방식, 데이터의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곧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돈이 될 수 있는 만큼 좀더 쉽고 편리한 금융을 개발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

정이다. 토스뱅크는 토스가 보유한 포괄적인 금융데이터, 사용자 경험 등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에서 소외되어온 중신용 개인 고객 및 소상공인(SOHO)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시장에서 이들 기업은 분명 후발주자다. 하지만 거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이들이 선보이는 서비스는 전통 금융기관에 위협으로 다가오는 요소다.

◆승부처는 플랫폼...기업만의 철학 반영돼야

이에 따라 주요 금융그룹은 '플랫폼 금융'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다양한 데이터가 마련돼 우선 선점하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빅테크 기업을 능가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 플랫폼 혁신을 통해 고객 접점을 더 확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넘버원(No.1)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플랫폼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시장과 같은 공간"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품 공급자로 전락하기 전에 다양한 생활 플랫폼과 제휴해 '생활금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디지털 플랫폼은 금융회사제1의 고객 접점"이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을 혁신하자"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전통 금융기관이 그들만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손익에 집중해 '어떻게 하면 비슷한 구성을 가진 플랫폼을 만들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느끼게 하느냐' 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강원 베인앤컴퍼니 컨설턴트는 "고객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어떤 것에 집요하게 열광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해 성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성공공식에 얽매어있기보다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빅테크 거대 데이터 기반 금융기관 위협 4대 금융지주 기승전 "플랫폼" 혁신 기술 활용, 차별화 주문

◆카카오·네이버·토스...트로이카 주목 올해 금융시장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국내 1위의 전문은행을 보유한 카카오, 국내 1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를 가진 네이버, 대한민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아이콘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트로이카(삼두마차)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간편결제, 송금, 대출, 보험 등 금융서비스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여수신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수행하고, 카카오 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손보사 설립을 통해 2030세대의 니즈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보험을 내놓을 방침이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부문에 이용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을 연계해 사업을 확장할 전망이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네이버 쇼핑 플랫폼 판매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소형 유통업자의 판매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은행에서 대출하지 못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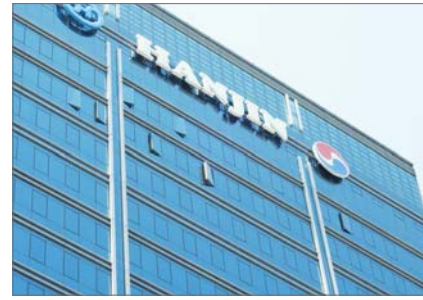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는 7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출범할 예

증자위한 대한항공 정관변경 2대 주주, 오늘 주총서 제동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또 다시 안갯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올해 첫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대한항공은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정해놓은 정관 제5조에서는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를 2억 5000만주로 정해놨는데, 이를 7억주로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발행 주식 총수의 확대 목적에 대해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개정할



한진그룹.

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발행 주식 총수의 확대 등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아시아나 인수가 걸려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공식화됐을 당시 대한항공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가 2억 5000만주로 한정돼 있

어, 정관 변경 없이는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도 불가능해져 아시아나 인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할 신주는 보통주 1억 7361만 1112주로 기존 발행주식총수(보통주 기준)인 1억 7420만 9713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오는 3월 12일이고, 상장일은 같은 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인 한진칼의 현 지분만으로는 이번 안건이 가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정관 변경안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코스피 3000선 코앞

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6.12p(1.57%) 오른 2990.57로, 코스닥은 8.14p(0.83%) 상승한 985.76으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087.6원으로 장 마감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 수출 1000억 달러 간다

코로나 악재에도 992억달러 기록 올해 10.2% 오른 1093억달러 전망

정부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 설비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2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협회는 2021년 반도체시장 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075억~1110억달러(기준전망 1093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역대 2번째 1000억 달러 이상 실적으로 역대 2위의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갱신하는 것이다. 메모리는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D램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한다.

낸드는 전년 대비 가격하락이 예상

〈글로벌 반도체 매출 톱10〉 (백만불)

순위	기업명	분야	2020 1-3Q 매출
1	인텔	IDM	56,807
2	삼성전자	IDM	42,199
3	SK하이닉스	메모리	19,502
4	마이크론(美)	메모리	16,240
5	브로드컴(美)	팹리스	12,951
6	퀄컴(美)	팹리스	12,824
7	TI(美)	IDM	10,178
8	엔비디아(美)	팹리스	9,262
9	HiSilicon(中)	팹리스	8,870
10	KIOXIA(日)	메모리	8,009

*파운드리 제외

되지만, 물량 증가분이 이를 상쇄해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5G 통신칩, 이미지센서 등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대형 고객 확보로 7.0% 증가한 318억~330억달러를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은 5G 시장 확대,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재택 근무와 원격수업 확대 등 비대면 경제 확산 지속 등으로 스마트폰·서버·PC 등 전반적인 전방산업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의 올해 D램 수요처 비중 전망을 보면 모바일 40%, 서버 35%, PC 13% 성장이 예상된다. D램 가격은 1분기부터 상승세 전환 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낸드 가격은 올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개편 기대에 따라 2019년 감소 이후 지속 증가세가 유지돼 올해도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7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2017년~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2019년에 중국·대만에 빼앗겼던 설비투자 1위 자리를 2년 만에 탈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